

EU 집행위, 2050년까지 연간 €700억 기후 적응 투자 필요성 제기… 기후 회복력 정책 전환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 집행위원회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□ EU 집행위원회는 기후 적응 투자 수요를 회원국별로 최초로 정량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연간 €700억(약 101조 원)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 ○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(DG CLIMA) 의뢰와 Horizon Europe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는 EU 및 회원국별 기후 적응 투자 수요를 단일 방법론으로 최초 산출 - 2024 유럽 기후위험평가(EU Climate Risk Assessment, EUCRA)의 리스크 군집 분석을 기반으로 기후 적응 투자 수요를 정량 추정 - 주요 투자 분야는 인프라 회복력 강화 €300억(약 43조 원), 생태계 보전 €210억(약 30조 원), 식량 안보 €120억(약 17조 원)으로 제시 ○ 유럽은 지구 평균 대비 약 2배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홍수·폭풍 피해만 €180억(약 26조 원)에 달해 기후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빠르게 증가 - €165억(약 24조 원) 규모의 스페인 발렌시아 돌발홍수와 보리스 폭풍에 따른 중유럽 홍수 등 2024년 주요 재난이 대부분 홍수로 발생하며 도시 침수 대응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확대 - EU 전체 경제 손실의 약 25%만 보험으로 보전되며 일부 회원국의 보험 커버리지는 5% 미만으로 공공 적응 투자 확대 필요 □ EU는 기후 회복력 통합 프레임워크 수립과 재정 정책에 기후 위험 평가를 반영하여 적응 투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추진 ○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기후 회복력·위험관리 통합 프레임워크 채택을 목표로 공개 의견 수렴을 완료 - 2026년부터 EU 회원국은 기후 변화의 거시재정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국가 예산 프레임워크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는 도시 재난 대응 인프라 투자 계획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 - 연구는 EU의 기후 적응 재원이 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저소득 지역을 고려한 '공정한 회복력' 원칙 적용을 권고 ○ 2026년 말 회복·회복력 기금 종료를 앞두고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(MFF 2028)와 연계한 기후 적응 투자 조기 집행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제시 - 2023년 EU 기후 투자 규모는 €4,980억(약 722조 원)이며 2030년 필요 투자 €8,420억 대비 €3,440억(약 499조 원)의 투자 격차 존재 - 코페르니쿠스 긴급관리 서비스 등 EU 조기경보 시스템과 회원국·지방 위험관리 체계 간 연계 강화 필요							

※ 출처 : European Commission(2026.01.23.), EU needs to invest €70 billion per year in climate adaptation up to 2050